

光復三〇年 韓國考古學界의

反省과 方向

尹 武 炳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舊石器時代의 研究는 發掘에 着手하면서 한쪽에서 研究를 시작하였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一九六四年에 公州 石壯里遺蹟에 대한 發掘을 시작한지 이제 一〇年을 經過하였으며 그 동안에 長足の 進歩를 가져오게 되었다. 學問的으로 空白에 가까운 狀態에서 오늘날의 研究水準으로 이끌어 올린 몇몇 少數의 學者에 대하여 그 間의 成果를 높이 評價하는 동시에 그 어려움이 수반되는 發掘을 組織的으로 推進해 온 努力에 대하여 깊은 敬意를 表하지 않을 수 없다.

石壯里유적에 대한 業績으로서 六文化層에 대한 究明이 현 段階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 層에는 祖型石刃技法을 基盤으로 한 石器群이 包含되었으며 한편으로는 少數의 杵(Chopper), 杓(Chopping tool)과 같이 兩面加工石器가 함께 出土되었다. 여기에서 採集된 木炭에 대한 C₁₄ 測定의 結果는 三〇, 六九二 ± 三三, 〇〇〇 B.P. 라는 年代를 얻을 수 있었으며 發掘者인 孫寶基 教授는 이 文化層의 時期를 舊石器 中期에서 後期初頭에 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發掘當事者는 이 유적에서 前期舊石器文化層의 存在를 期待하고 있으나 그것을 立證하려면 몇 가지 方法的 前提가 充足되어야 하겠다. 즉 出土된 石器群에 대하여 그 形態 및 製作技術上에 있어서의 類型的 分析이 이루어져야 하며 한편 遺蹟에 대하여서는 적어도 文化層 속에서 遺物群의 어떤 pattern의 分布狀況을 보이면서 出土되는지를 究明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보다 더 確實한 根據의 提示로서 人間의

生活活動에 대한 痕跡들, 즉 住居址, 埋葬址 혹은 石器製作址와 같은 遺構의 發見이 可能해진다면 그 이상 다행한 일은 없겠다.

韓國 舊石器文化의 追跡에 대한 努力은 石壯里 以外の 地域에 대하여도 擴大되어야 하겠으나 아직까지는 그다지 神通한 成果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分野에 있어서의 學問的인 現實인 것 같다.

二

한국의 新石器文化를 代表할 수 있는 標準遺物로서는 櫛文土器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韓國의 新石器文化는 이 土器의 이름을 따서 櫛文土器文化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先史文化 중에는 이 櫛文土器文化와 區分되는 또 하나의 文化, 즉 소위 無文土器로서 代表되는 文化가 存在한다. 이 對立되는 두 가지 文化의 分布에 대하여서는 解放전에 日人學者들에 의하여 그 研究가 開始되었다. 그 當時의 日人學者들의 소박한 見解로서는 이 두 個의 文化는 同一時代에 併存하였으며 서로 系統을 달리한 集團들에 의하여 產出되었다고 解釋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을 되풀이해서 表明하는 學者는 韓國考古學界에는 한 사람도 없다. 櫛文土器文化가 앞서서 形成되었으리다. 段階에 이르러 無文土器文化가 到來하였다는 時代的인 概念은 이미 國民學校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常識化된 知識으로 適用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文化의 先後關係에 대한 考古學的인 解明이 아말로 解放後 三〇年間에 있어서의 가장 顯著한 業績 중의 하나였다는 事實을 잘 認識하고 있는 人士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南韓에 있어서의 櫛文土器文化에 대한 編年的 研究는 踏步狀態를 免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에 있어서 遺蹟에 대한 發掘調査事業은 결코 그 頻도가 낮은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發掘의 規模도 成長되어 本格的인 水準에서 實施를 본 遺蹟들이 한 두 군데가 아닌 것 같다. 發掘年度順에 따라 列舉한다면,

- 楊州郡 漢沙里(一九六〇), 金海郡 農所里(一九六四), 坡州郡 玉石里 A地點(一九六五), 釜山 多大浦(一九六六) 黑山島 鎮里(一九六七), 泗川 舊坪里(一九六七), 서울 岩寺洞(一九六七, 七一七五) 釜山 東三洞(六九

、七〇、七二)、富川郡 矢島(一九七〇)、春城郡 內坪里(一九七一) 遺蹟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東三洞과 岩寺洞 유적이 重要하였다. 이 두 遺蹟에 대한 發掘은 주로 國立博物館의 스태프에 의하여 遂行되었으며 東三洞에서는 세밀한 分層의 發掘을 實施한 結果 文化層이 上·中·下의 三個層으로 區分된다는 事實이 確認되었다. 그 중 最下層은 南韓에서 최초로 밝혀진 圓底의 無文土器層이며 中間層은 櫛文土器의 盛行期, 그리고 上層은 平底의 二重口緣土器들에 의하여서 日本의 繩文土器와 同一한 型式의 口緣部破片이 出土되어 우리 學界 뿐만 아니라 日本 考古學者들 사이에 큰 關心을 불러 일으키는 結果를 가져오게 되었다. 한편 서울 岩寺洞에서는 今年度에도 發掘이 續行된 바 있는데 여기에서는 砂質土의 土層임에도 불구하고 堅穴住居址의 發見에 成功하였으며多數의 堅穴住居址들이 서로 겹쳐서 稠密하게 分布한 聚落遺址의 存在가 차츰 그 全貌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發掘成果들은 앞으로의 新石器時代 文化 研究에 큰 도움을 가져오리라고 期待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훌륭한 成果를 올리고 있는 反面에 이들 發掘은 重要한 遺蹟을 일수록 學術報告書의 刊行이 遲延되고 있는 것은 매우 遺憾스러운 일이다.

三

考古學上에 있어서의 時代區分法은 一九世紀에 덴마크의 考古學者인 톰센(Thomsen)이 提唱한 이후로 石器時代、靑銅器時代、鐵器時代의 세 時代로 區分하는 方法을 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靑銅器文化에 대한 時代設定이 비로소 定立을 보게 된 것은 역시 日人學者들이 本國으로 돌아간 후의 일이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過去三〇年間的 韓國 考古學에 대한 學史的 回顧에서 큰 意義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靑銅器時代에 대한 考古學的 研究는 그 年數가 매우 얕다. 그러므로 靑銅器時代의 內容에 대한 考古學的 把握은 學者에 따라 적지 않은 差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 學界에 처음으로 靑銅器時代의 概念이 導入된 契機를 돌이켜 볼 때 多分히 理論的인 側面에서 이 時代의 設定을 당연한 것으로 主張한 一部 學者들의 見解에 影響을 입은 바가 적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一般적으로 알기로는 우리나라 靑銅

器時代의 開始는 無文土器文化의 傳播과 때를 같이 하고 있다고 理解하고 있다. 最近 몇 년 동안에 發表된 主要한 學術 著述과 論文들을 보면 대개가 이러한 見解를 支持하고 있으며 그것이 그대로 많은 歷史的 著作이나 심지어는 國定教科書의 編纂에까지 反映되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無文土器文化의 起源이나 그 成立過程에 대한 研究는 아직 도 그 段階가 遠遠하다는 것이 우리 學界의 實情임을 여기에 밝혀 둘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靑銅器時代에 대한 問題나 論議를 떠나서 그 동안의 無文土器文化 自體에 대한 研究 成果를 指摘한다면 一九六〇年代 後半에 國立博物館에 의하여 完成된 支石墓研究를 가장 重要한 基礎的인 業績의 하나로 들지 않을 수 없다. 前後 七年間에 걸친 이 調査 研究에서 支石墓의 構造와 그 形式에 있어서의 區分 및 時代變遷에 대한 概要가 대략 把握된 것이다. 이 調査事業에 附隨된 副次的인 成果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無文土器時代의 堅穴住居址에 대한 調査가 비로소 視野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一九六五年에 實施된 坡州 玉石里의 北方式支石墓下에서 發見된 길이 一五·七m의 大形 堅穴住居址는 거의 完壁에 가까운 狀態로 地下部가 殘存하고 있었다. 이 發掘은 過去에 있어서의 日人學者들의 技術的水準을 훨씬 凌駕하는 鼓舞的인 成果였으며 韓國考古發掘史의 一頁에 特記해 돌만한 價値가 있는 事件이었다.

無文土器의 住居址遺蹟에 대한 調査는 이에 앞서 楊州郡 水石里(一九六〇)와 서울 城東區 可樂洞(一九六四)에서 試圖된 바 있었고, 그 후로는 交河 多粟里(一九六五)、大邱 燕岩山(一九六五)、서울 驛三洞(一九六六)、海美 休岩里(一九六七·七〇)、驪州 欣岩里(一九七二·七五) 遺蹟 등에 대한 重要한 一連의 調査事業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중에서 可樂里遺蹟은 南韓型的 變形土器라고도 規定할 수 있는 소위 可樂里式 土器의 出土로 注目을 끈 바 있었으며 無文土器에 대한 編年的 研究에 귀중한 資料를 追加하였다. 大邱 燕岩山은 遺物散布地에 대한 地表調査의 範圍를 넘지 못하였으나 그 出土狀況에 대한 記錄은 南韓의 後期無文土器 遺蹟의 樣相을 把握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重要하였다.

한편 遺物에 대한 研究는 매우 低調하며 石器分野에서는 半月形石刀

에 대한 연구 以外에는 별로 成果가 없었다. 土器에 대해서도, 南韓에서는 復原이 可能하거나 完形土器의 出土가 매우 是문 尙담에서인지 이렇다할 進展을 보지 못하고 있다. 靑銅器는 그 동안에 있어서의 활발한 理論的 展開에 刺戟을 받아 出土遺物 全般에 걸쳐 編年的인 分析을 試圖한 研究가 發表된 바 있었다.

비단 無文土器文化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先史文化的 研究는 以上과 같은 基礎的인 領域에 대한 努力 不足으로 말미암아 文化의 本質에 관한 重要問題의 解明에 큰 障礙를 가져오고 있는 것은 매우 遺憾스러운 일이다. 遺物·遺蹟을 상대로 한 型式分類나 編年에 대한 偏重的 研究를 굳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現段階에 있어서의 考古學研究的 視點을 明確하게 認識할 必要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實證的 方法을 앞세운 充分한 說得力이 있는 研究態度的 確立이 아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遺蹟·遺物에 대한 個別的 研究的 基礎 위에서 비로소 問題點의 整理가 解決되며 本質에 대한 把握이 可能해진다고 생각한다.

無文土器時代의 農耕文化에 대한 問題解明도 아직 初步的인 範圍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分野에서는 일찌기 稻作文化의 傳播에 관해서 金元龍 教授가 發表한 論文이 있으며 그 內容은 오늘날에 와서도 아직 檢討할 價値를 지니고 있으나 그 후로는 별다른 研究·進展이 없었다. 이分野에서도 實證的 研究的의 뒷받침이 수반되지 않은 現況下에서는 方法論的으로 限界線에 到達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다.

四

無文土器文化라고 하는 學術語의 使用은 앞으로 어느 時期에 到達하면 消滅되리라고 豫測된다. 그 用語가 가리키는 바 內容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無文土器로 區分하는 土器型式은 多種 多數하며, 그 使用期間에 있어 千年 혹은 그 이상 되는 긴 세월을 두고 變遷을 거듭해 왔다. 이 동안에 우리나라 原始社會는 石器時代의 段階에서 靑銅器時代를 거쳐 初期鐵器時代로 進入하였다. 初期鐵器文化의 形成과 그것을 基盤으로 한 古代社會의 歷史的·時代的 展開에 대한 理論的 把握은

비교적으로 容易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실제로 考古學上의 具體的 根據를 提示하면서 그 推移過程을 밝히려면 역시 아직도 적지 않은 年輪이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慶尙南道의 海岸地帶에 貝塚을 形成하면서 集中的으로 分布한 特殊한 遺蹟들이 있으며 우리는 이들에 대하여 便利한대로 金海文化라는 이름으로 불러왔다. 過去에 있어서의 初期鐵器文化에 대한 調査研究는 주로 이 金海文化를 對象으로 하여 進行되어 왔으며, 一九五九年에 高麗大學에서 實施한 熊川貝塚 發掘을 시초로 하여 그 후 國立博物館에서는 梁山(一九六七) 東萊(一九六七—六八) 固城(一九六九—七〇) 貝塚에 대한 大規模의 調査事業을 推進한 바 있었다. 七三年度에는 金山 朝島貝塚에서 鐵劍, 그리고 管玉과 水晶으로 連結된 목걸이를 副葬한 完全한 人骨을 發掘하는 데에 成功하였다. 東萊貝塚에서는 製鐵址로 생각되는 重要한 遺蹟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檢出되었으나 이에 대한 技術史的 檢討는 소홀이 다루어져 있으며 發掘報告書도 아직 刊行되지 않았다. 그 以外에 釜山大學에서 發掘한 遺蹟 몇 個가 있으며 그 중 昌原 城山貝塚은 七四年에 이르러 機械工業團地 造成時에 再次 大規模의 發掘이 實施되었다.

金海文化는 말하자면 하나의 特殊하게 發達된 地域文化에 不過하며 그 調査를 통해서 밝혀진 文化內容이 그대로 初期鐵器文化 全般에 걸친 樣相을 代辯해 주리라고 期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들과는 별도로 內陸地方에 대한 調査活動으로는 近年에 이르러 漢江 流域에서 약간의 注目할만한 業績들이 報告되었다. 즉 加平 馬場里(一九五一—五二) 城東區 風納里 土城內包含層(一九六四), 楊平 大心里(一九七二) 遺蹟 등에 대한 調査가 그것이며 이들은 주로 서울大學校 考古學科에서 主導하여 왔다. 加平 馬場里는 六·二五動亂時 美軍部隊에서 個人壕를 파다가 發見되었었으며 맥코드 라는 少額에 의하여 그 調査 結果가 發表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最初로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이 實施된 遺蹟이다. 이 漢江流域의 遺蹟들에서는 비교적 古式의 鐵製遺物과 함께 金海式土器 系統의 土器破片들이 多樣하게 出土되었다. 그러나 金海式土器에 대한 編年研究는 아직도 充分한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

이 漢江下流域地方은 百濟 初期社會의 基盤이 成立된 地域이므로 上記遺蹟들에 대하여서는 좀더 그 性格이 浮刻된 必要가 있지 않음을까 생각된다.

初期鐵器時代로 代表하는 鐵製遺物들은 오히려 靑銅製의 細形銅劍을 副葬한 소의 土壙墓에서 적지않은 數量이 出土되고 있으며 堅穴住居址에서의 發見例도 드물게나마 알려져 있다. 앞으로 이 文化期에 대한 研究는 이와 같은 遺物들에 대한 個別的 研究가 併行되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細形銅劍을 携帶한 土壙墓構築人들이 生活한 住居址關係遺蹟은 어떤 類型에 속하는 遺蹟들이었는지 究明하는 데서 새로운 研究를 指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五

三國期 以後의 歷史考古學의 領域은 古墳을 中心으로 하여 가장 오랜 學史의 消長과 活潑한 活動이 계속된 分野라고 할 수 있다. 특히 一九七一年의 百濟 武寧王陵의 發見으로 衝擊을 받은 이후 연이은 慶州一五五號와 九八號墳의 發掘은 學界뿐만 아니라 온 國民에 이르기까지 古墳考古學에 대한 至大한 關心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마야호로 古墳에 대한 發掘은 前無後無한 絶頂期에 到達한 感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古墳發掘史는 韓日合邦 前夜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一九〇六年에 이미 日人學者들에 의하여 慶州 新羅古墳의 發掘이 開始되었다. 以後로 日政治下를 通하여 日人學者들에게 掌握된 韓國考古學의 歷史는 樂浪과 慶州의 두 地域을 主軸으로 한 寶物찾기와 같은 古墳發掘史였다고도 表現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傾向은 解放 후에 이르러서도 쉽게 拂拭될 수 없었으며 初創期的 考古學發展에 큰 役割을 遂行한 國立博物館의 調査事業에서 그 餘韻을 엿볼 수 있다. 一九六一年에 서울大學校에 考古人類學科가 創設되었다. 같은 해에 全國一七個大學이 參加한 大學博物館協會와 또한 國家의 文化財保存行政을 總括하는 文化財管理局이 新設되었다. 大學博物館協會 傘下에서 새로 發掘活動을 시작한 大學博物館들의 第一의 目標가 豊富한 遺物의 出土였고, 이를 期待할 수 있는 三國期 古墳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은 無理도 아닌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國家經濟施策의 高度

成長에 따라 近來에 擴大一路에 있는 各種開發事業에서 要求되는 古墳 기타 遺蹟에 대한 行政的 發掘은 考古學界에 急激한 變貌를 惹起하고 있으며, 그 代表的인 例의 하나가 慶州市綜合開發事業의 一環으로 着手된 一五五號 및 九八號古墳에 대한 超大型 發掘이었다. 이와 關聯해서 지난 七三年度에 實施된 鷄林路工事와 味鄒王陵地區의 淨化事業에 附隨해서만도 百餘基에 達하는 大小의 古墳들이 無數히 發掘된 바 있었다.

이와같은 古墳發掘에 있어서의 量産化 現象은 그에 隨伴해서 必然的으로 考古學資料의 莫大한 蓄積을 招來하게 되었다. 現時點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歷史考古學分野의 最大의 課題는 이 莫大한 發掘資料를 如何히 整理하고 活用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古墳研究의 新體系를 早速히 樹立할 수 있을지의 與否가 가장 큰 關心事로 되어 있는 것이다. 古代史 研究에 있어서 考古學資料가 記錄의 空白를 메우는 歷史의 證人으로서 다시없는 重要한 價値를 지니고 있다 함은 새삼 말할 나위도 없다. 資料의 無意味한 蓄積으로 그치는 發掘을 우리는 銘心하여 警戒해야 하는 것이다.

頻繁한 古墳發掘과 그 후의 處理過程에서 근래에 볼 수 있는 새로운 特徵은 出土遺物의 保存問題를 둘러싼 自然科學者들의 積極的인 協助와 그 強力한 發言이다. 우리나라의 自然科學分野에서 처음으로 考古學에 대하여 具體的으로 參與하기 시작한 것은 역시 放射性炭素年代測定法이 七、八年前에 原子力研究所에 導入된 이후부터의 일이다. 物質的 資料를 研究對象으로 삼는 考古學分野에서의 自然科學知識의 應用은 當然한 일로서 이미 先進國家에서는 廣範圍한 形態로 그 成果가 結實되어 가고 있다. 비단 遺物의 科學的 保存問題뿐만 아니라 遺蹟과 關聯된 生活環境이나 當時의 自然景觀의 復原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活動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關心이 있는 優秀한 學者들이 이 方面에 視野를 돌리기 시작한 것은 매우 鼓舞的인 일이며 學界의 앞날을 위하여 歡迎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아직은 서로가 協助의 進行過程에서 經驗이 不足된 탓인지도 모르겠으나 自然科學者들의 一方的인 熱誠과 主張은 考古學者들에게 發掘에 대한 危懼心과 萎縮을 가져오지 않을까 念慮되기도 한다.